

중보기도 Intercession Prayer

1. 제 4대 담임목사님을 위하여
2. 2021년도 예배에 생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3. 환우와 시니어 공동체를 위하여
4.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위기를 잘 극복하기 위하여
5.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교회와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위하여
6. 디모데 프로젝트 제자훈련과 하나님의 VIP를 위하여
7. 국내/해외 선교지와 사역자의 안전을 위하여
8.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아이티와 내전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프가니스탄을 위하여
9. 한반도 평화와 정세 안정을 위하여
10. 미국의 정치/경제/문화를 위하여
11. 지역교회 살리기(포도나무교회-김명신 목사) 위하여
12. 이번주 지역교회 중보기도: 타코마 뱀엘교회 - 박승순 목사

국내/해외 선교 Home/Overseas Mission

국내 선교 지역

- ▶ 방송 선교지원
- ▶ 노숙자 동지 선교회
- ▶ 아프리카 우물파기
- ▶ 샤론센터
- ▶ 오병이어의 기적 M52
- ▶ 한국선원 선교회
- ▶ 이완구 장학사역

선교 방송 스케줄

- ▶ 코엠TV(채널 257): 매주일 7:25AM
- ▶ 라디오 한국(AM 1450): 매주일 8:30AM
- ▶ 라디오 코리아(어플다운): 매주일 7:00AM

해외 선교 지역

- ▶ 동아시아 50개 교회
- ▶ 독일/시리아 난민선교(JDL)
- ▶ 쿠바(정경석)
- ▶ 니카라과(해밀턴)
- ▶ 도미니카 아이티(문애희/Vilcaive)
- ▶ 우크라이나(박철규/김경희)
- ▶ 잠비아(Emile)
- ▶ 말레이시아(고인섭)
- ▶ 터키(이성숙/자슈아)
- ▶ 슬로바키아
- ▶ 헝가리/집시선교(박완주)

기독교 기관 선교

- ▶ 미주 남침례회 SBC
- ▶ 북미주 한인침례총회 CKSBCA
- ▶ 서북미 한인침례교 협의회
- ▶ 한인국내선교부
- ▶ 한인해외선교부
- ▶ 남침례교 6대 신학교
- ▶ 한국침례신학대학교
- ▶ 밀알선교단

제일 어린이 동산(Day Care)

1328 S. 84th ST. Tacoma
253) 535-9435 Director 박정희

아름다운 기도원

28814 Mountain Hwy E. Graham
253) 847-2250 Director 안광일목사

SINCE 1975

2021년 11월 21일(추수감사주일)

WORSHIPPING CHURCH 2021

예배에 생명을 다하는 교회

타코마제일침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무너진 세대를 연결하고, 교회와 세상 사이에 다리를 놓아,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성령공동체이다.

주일예배

- 장년부 제1부 한어예배 7:40AM / 본당
장년부 제2부 영어예배 9:20AM / 본당
장년부 제3부 한어(통역)예배 ... 11:00AM / 본당
사랑부 예배 (장 애인).....11:00AM / 베들레헴
- 영아부 예배 9:30, 11:00AM / O-3
유치부 예배 9:30, 11:00AM / 나사렛
유년부 예배 9:30AM / 베들레헴
11:00AM / 나사렛
- 영어청년/Youth 예배 11:00AM / 안디옥
한어청년 1:30PM / N-201

수요일예배

- 장년부 한어예배 7:00PM / 본당
장년부 영어예배 7:00PM / 안디옥
영아부, 유치부 어와나 7:00PM / 나사렛
유년부 어와나 7:00PM / 베들레헴

금요일모임

- Youth 7:00PM / 안디옥
영어청년 7:30PM / 유스룸
한글학교 6:00PM / 각교실

새벽예배

- 한어부 월-토 / 6:00AM / 본당
영어부 화-토 / 6:00AM / N-202

CONTACT

Phone: 253.535.5803 Fax: 253.535.2240
Address: 1328 S. 84th St., Tacoma, WA 98444
Email: tfbc002@gmail.com

tfbc 타코마제일침례교회
Tacoma First Baptist Church

YouTube tfbc

www.tfbc.org

주일예배

Worship Service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1부 연합 예배 오전 8:00

1부 연합 인도: 남궁곤 목사

3부 연합 예배 오전 11:00/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

3부 연합 인도: 토레스 프랭크 목사

* 경배와 찬양

1부 연합: “복의 근원 강림하사”

“주 신실하심”

“왕 되신 주께”

“주님께 감사”

3부 연합: “주 이름 찬양”

“예수 아름다우신”

“주 품에”

기도

1부 연합: 인숙랭 집사/ 토레스 프랭크 목사

3부 연합: 백동선집사/ Mike Galvin

봉헌찬양

1,3부 연합: “주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공동체 소식

* 성경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18

제목

“모든 환경속에서 감사하자”

말씀선포

안재훈 목사

* 응답찬송

1,3부 연합: 377장 “나의 모습 나의 소유”

* 축도

* 표는 일어나 주십시오(All Rise)

이달의 말씀 Word of the month

“여호와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시편 18:2)

5. **하나님의 VIP 2021년 3기와 디모데프로젝트 제자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VIP와 디모데프로젝트 제자훈련에 참여하는 성도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프로젝트 제자훈련은 오늘 휴강합니다.

6. **교회 교적부 사진 업데이트: 11/21(오늘)과 11/28(다음 주일)** 각 예배 전후에 교회 로비에서 교적부 사진 업데이트를 위한 사진 촬영을 합니다.

7. **성탄절 헌화:** 강단을 장식할 포인세티아 헌화를 원하시는 분들은 로비에 준비된 용지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분 한개 당 \$10)

※ **성탄절 장식 데코레이션: 11/27(토) 오전 10시.** 성도님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8. **M52 구제 현금 신청:** M52는 우리 교회 구제 현금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돕는 사역입니다. 교회 안에 어려운 성도들이 있다면 예수마을 공동체장과 청지기들에게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자원봉사자 모집:** 헌신하기 원하시는 분은 로비 안내데스크의 사인업 용지에 신청바랍니다.

(1) 다음세대(유치부, 유년부, Youth, Awana 교사) 및 자원봉사자 모집

(2) 주차장 안전 요원 모집: 주일 1, 2, 3부 예배와 수요일예배 때

10.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자동차에 귀중품** 등을 차에 놓고 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11. **내년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위한 ‘국외부재자/재외선거인’ 신고 등록 기간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성도는 해당 기간에 신고하셔서 내년 투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기간: 2021.10.10-2022.1.8

◆ 행정사역(Administration Ministry) ◆

◇ **사무실 휴무:** 11/25(목)-26(금)은 추수감사절로 사무실은 휴무합니다.

◇ **한어부 새벽예배:** 11/25(목)은 새벽예배가 없고, 11/26(금)은 새벽예배를 본당에서 드립니다.

◇ 주중에는 **교회 메인 게이트(M번가)**를 닫습니다. 데이케어 쪽(84번가) 게이트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수요일예배와 주일예배때에는 열어 놓습니다)

◆ 교우동정(Compassion) ◆

◇ **출산:** 서엘리 Elisa Choi Suh (서강호/지나 득녀) 11/12(금).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보:** Wilbur Moore, Mike Moore, Clarence Turner, Willie Buggs, John Zemzars, Leah An, William Dungey, Kenneth Adkins, Eric Mose, Tom Bayliss, 허은미, 양례깁스, 오주연

드려진 예물 Last week Offering

공동체 소식

Announcement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우리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로비에서 사역자를 만나 교회 등록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WORSHIPPING CHURCH 2021

예배에 생명을 다하는 교회

타코마제일침례교회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TFBC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워싱턴 주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참여하거나 교회를 방문할 때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주일 2부/3부/수요성령예배/새벽예배는 유튜브 라이브로 예배를 계속 제공합니다.
- * 유년부, 유치부는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제공합니다.
- * 영아부, 사랑부 예배는 당분간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 현장예배 가이드라인

- * 교회 내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반드시 지정된 자리에만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 서로서로 신체 접촉은 피하시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본인이나 가족 중 아프신 분이 계신 분들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 * 예배가 끝나면 신속한 방역을 위하여 본당 건물 밖으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다음세대예배(유치, 유년, Youth) 때에는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 체온 점검, 이름 기록을 하겠습니다.

1.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연합예배**로 드립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예물과 함께 감사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후원해 주셔서 강대상을 꾸민 추수감사헌물은 교회 주변의 소방서, 경찰서, 선교기관 등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2. **침례식: 오늘 오전 10:45에 본당**에서 침례식을 진행합니다. 함께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례자: 오현석, 황환석, 황현정, 은세진**

3. **수요성령예배:**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풍성한 찬양과 말씀이 있는 수요성령예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평강"**이란 주제로 **누가복음 강해를** 진행 중입니다. 수요성령예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 **사무처리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사무처리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장소: **12/5(주일) 오후 1시. 본당**

※ 안건: (1) 2019년, 2020년, 2021년 재정 결산 보고 및 승인 건.

결산안 사무실에 비치해 놓았습니다. 결산안을 미리 보기 원하는 성도는 교회 사무실(업무시간 중)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단 사진촬영과 복사는 안됩니다. 원활한 사무처리회 진행을 돕기 위하여 예산안에 대한 의견과 질문이 있는 경우 교회 대표 이메일(tfbc002@gmail.com)로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 2022년 임시 임명집사 승인 건

(3) 4대 담임목사 샬러리 승인 건

수요성령예배

Wednesday Prayer and Worship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이다

수요일 저녁 7:00/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

인도: 전우일 목사

찬양과기도	찬 양 팀
기 도	민정위드맨 집사
제 목	[누가복음 강해/ 평강 45] “하나님의 지혜가 일했으니”
성 경 본 문	누가복음 11:37-54
말 씀 선 포	전우일 목사

봉사위원 Volunteer

	이 번 주	다 음 주
기 도 Prayer	1부연합 인숙탱 집사/ 토레스 프랭크 목사	1부 채길호 집사
	3부연합 백동선 집사/ Mike Galvin	3부 백영기 집사
	수요 민정위드맨 집사	수요 유정옥 집사
주차장	안전을 위해서 본당 앞쪽으로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위원 Usher	안내: ① 교회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사회적 거리 유지를 항상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① 당분간 예배 중에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습니다. ② 로비에 비치된 헌금함이나 온라인 헌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오찬 봉사	COVID-19으로 당분간 주일 오찬은 없습니다.	

새벽 예배 설교

날짜	본문	설교자	날짜	본문	설교자
11/22(월)	욥기 29:18-25	전우일 목사	11/23(화)	욥기 30:1-15	남궁곤 목사
11/24(수)	욥기 30:16-31	남궁곤 목사	11/25(목)	욥기 31:1-23	추수감사절
11/26(금)	욥기 31:24-40	남궁곤 목사	11/27(토)	하박국 1:1-17	전우일 목사

※ 새벽예배는 온라인 라이브 스트리밍으로도 제공됩니다. 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 **제목: 주 여호와와 나의 힘이시라!**

□ **본문: 하박국 3:16-19**

‘주 여호와와 나의 힘이시라!’. 우리가 찬양으로도 자주 부르는 이 고백은, 하박국서의 마지막장 마지막 절에 남겨진 한 문장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서를 처음부터 다 읽어보면 이 짧은 고백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상황은 유다 왕국의 역사 중에서도 가장 비참하고 가슴 아픈 시간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할 때가 다가오고 있었고,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지도자들과까지도 부정부패가 만연하였으며, 힘 없고 가난한 자들은 계속해서 억압과 착취를 당하며 부당하고 억울한 세월을 보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즉, 모든 사람의 가슴에 먹먹한 감정이 쌓여져 가고 모두가 감사를 잃어버린 시간이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 보다도 크신 하나님은 특별히 하박국 선지자를 만나 주시고 회복시키셔서, 인생의 한 문장을 남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항상 무엇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게 하십니다.

1. 고난 중에서도 기도하라

일반적으로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서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고난 가운데에서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 질문을 했고 그에 대한 응답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이니이까?”, “세상에는 악인들이 이렇게 횡포를 부리고 다니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다의 물고기처럼 땅의 벌레들처럼 힘 없지만 살아가는데 어찌하여 왜 하나님은 아직도 왜 잠잠히 계시나이까?”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의 두 번의 질문 속에는 또 다른 고난의 한 사람, 읍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읍도 깊은 고난 속에서 ‘어찌하여’라는 말로써 하나님께 계속해서 질문했기 때문입니다.

“어찌하여 고난 당하는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생각해보면 우리에게도 [어찌하여]라는 말이 낯설지 않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쳐도 해결되지 않는 고난의 시간속에서, 깊은 한숨과 눈물이 담긴 질문을 쏟아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도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왜 그랬어야 하는지, 그래서 그 고난으로 나에게 무엇이 남겨 졌는지도 거의 알지 못하고 지나가게 됩니다. 즉, [어찌하여]라는 말로 하나님께 항의하던 읍과 하박국은, 왜 자신이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박국도 그랬고, 읍도 그랬고 예수님도 고난 중에서 견딜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 솔직하게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즉,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서도 기도하는 자는 감사를 누립니다. 기도하는 자로 부터 주변이 회복되어 진다는 것을 먼저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2. [어찌하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말씀을 읽다 보니 질문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응답하시며, 깊은 상처를 회복시키시고 감사를 고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읍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온전한 자로서 정직하고 악에서 떠나 경건함을 지켜 오던 대표적인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연약한 인간인자라 그 거대한 고난 앞에서는 읍도 사정없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후반부로 갈 수록 읍도 하나님께 원망 섞인 말을 쏟아 놓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읍에게 응답하십니다. 읍기서가 전체 42장으로 되어있지만, 하나님은 무려 37장까지 읍에게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이때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드디어 38장에서부터 거대한 폭풍가운데에서 응답하시며 읍을 회복시키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읍이 원하는 대답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려 70여개의 질문들을 쏟아 놓으시며, 창조주 하나님을 직면하게 하셨습니다. 그동안 [어찌하여]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고난에만 매여 있던 읍이, 이제 드디어 기나 긴 고난의 터널을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응답은,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내가 듣고 싶은 답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도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동안

답도 알 수도 없었던 그 고난, 아무리 생각해 봐도 억울함과 절망과 분노와 좌절만을 바라보게만 하던 고난에만 머물러 있던 - (육에 매여만 있던) 나의 시선이 드디어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예 응답 받은 읍이, 읍기서 마지막장 42장에서 읍이 이렇게 대답하게 됩니다.

42:5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6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읍이 온 몸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직면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회개’였습니다. 다른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즉, 고난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즉,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삶에 철저한 회개에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고백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속에서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침묵할 수 밖에 없어서 아무 말도 못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연단하시기 위하여 일부러 인내하셨음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도 함께 계시고, 지키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나와 인도하실 것이 깨닫게 되어지니까 그러므로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미리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시 고난과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도,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도 함께 계시며, 앞으로도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니 두려움이 없는 것이지요.

마침내 하박국 선지자가 이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세상만을 바라보고 있었을 때에는 감사가 더 메말라져 가게 되었지만,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직면하고 나서 그 시선이 바뀌어졌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 회복된 하박국의 마음에 어떠한 감사의 제목이 있는지를 보십시오.

16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리므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17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도다

이 짧은 구절에, 안된다란 말이 무려 6번 이나 나옵니다. (못하며, 없으며, 없으며, 없으며, 없으며, 없을지라도)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그리고 외양간에 많은 양과 소가 있어야 기뻐하는 것이 우리 본성입니다. 그런데 눈 앞에 보이는 현실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기대했던 열매가 없고 여전히 고난이 해결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기뻐합니다. 이제 나는 오직 한 분, 나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도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없고 없으니,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으며, 만족되지 않는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자꾸만 [어찌하여]라는 단어 안에 갇혀 버릴 뿐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고난을 만나면 [어찌하여]라는 질문만 하다가 끝날 인생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혹시라도 지금 감사가 메말라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질문하십시오. 하나님을 직면하는 그 자리, 십자가 앞까지 나아가십시오. 그 곳에 나아가야 진정한 회복과 감사가 시작되어집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매일 하박국과 같이 담대하게 먼저 선포하세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 저와 여러분은,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감사와 기쁨의 고백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임을 기억하십시오. 또 다른 감사의 일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부터 기도가 회복되며, 감사가 충만해 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눔 묵상 질문]

1. 최근에 무엇으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2. 하박국 선지자가 회복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3. 고난 중에서도 응답 받은 경험을 함께 나누에 보세요.